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시편 32:11, 빌립보서 4:4-6

정윤돈 목사님

* **시32: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 **빌4-6**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뢰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공화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종일 드러지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축복과 은혜를 뛰어넘어,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주는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성취될 언약의 레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힘과 해답을 주어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군가 살짝 끼어들었을 뿐인데 뒤에서 격렬하게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가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데에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있다. 표면적인 사실은 누군가 범을 어기고 새치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경적을 울린 자의 내면의 진실은 그날따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부부 싸움을 했거나, 기본 나쁜 일을 겪어 마음에 어여움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보다 깊은 영적 사실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돈 문제, 자녀문제, 부부관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자신을 제어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욕하는 마음에 욕을 하고 싸우며 심지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조종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며 인생을 망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기쁨은 그저 기분이 좋아서 실없이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의 기쁨이 아니다. 주 안에서 '이유 있는 기쁨'을 누리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엘리트 불신자들도 확고한 인생철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화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물며 성도들이 책 한 권 읽지 않고 말씀 묵상도 없이 아무렇게나 휴가와 혼돈 속에 던져진 인생처럼 욕하며 살아서야 되겠는가. 나이만 먹고 평생 철없이 사는 어른들이 수두룩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생이라도 눈동자만 보면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해야 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10대, 20대의 젊은 나이에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만난다. 얼굴이 충분히 예쁜 한 여학생은 코가 마물에 들지 않는다고 코수술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내 얼굴이 예뻐져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철저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인지심리치료를 사용하지만 영적으로 각인된 저주든 세상의 상담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진짜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예뻐야만 성공한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본 좋은 일보다 나쁘고 짜증나는 환난과 갈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1:2)"고 하셨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기뻐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지

만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장의 짧은 성경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한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한 데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다. 구원과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서로 인상을 쓰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고 친구는 졸업하든 그만이지만, 교회 식구는 천국 갈 때까지 보아야 할 가족이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의사처럼 건강한 사역자도 있지만 상처와 영적 문제가 가득한 중환자도 넘쳐난다.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을 뿐, 때로는 담당목사가 가장 심각한 영적 중환자일 수도 있다. 교회는 죄인과 중환자가 모이는 영적 병원이기에, 이 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슴의 힘이 없으면, 나 스스로가 지옥을 살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느라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셨다.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알박한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절대 기쁨'이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돈이 없어도, 내 외모가 부록해도, 남편이 이상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교회 안에 갈등이 가득해도,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위기는 훗날 당신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축복의 통로요, 대로(大路)가 될 것이다. 시험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고 매사에 지나치게 행복해하는 어느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하셨다. 힘들고 답답할 때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기쁜 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박국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에, 스스로 처절하게 부딪히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원하신다. 유치원 아이들의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이다. 개척시절 유치원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혀놓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들의 눈망울이 또랑또랑 빛나며 미동도 하지 않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청소년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자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와 예배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는 신앙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묵묵히 주님 앞에 있더라도 부르짖으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고 응답의 확신이 차오른다. 눈을 떠보면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 속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찬란하게 성취되고 마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헬라어로 쓰인 '기뻐하라'는 단어는 '카이로(Chairo, χαίρω)'이다. 이는 육신적인 기분이 좋아 웃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주권,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뜻한다. 카이로의 명사형인 '카라(Chara, χαρά,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Charisma, χάρισμα)'이다. 흔히 세상에서 리더십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카리스마가 있다'고 오용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에스더에게 감옥과 노예의 비참한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비전과 이면계약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상해에 동요되지 않는 굳건한 언약의 선물을 쥐고 기뻐해야 한다. 날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서도 매사에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1. 빌립보교회의 설립과정과 특징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의 축복을 받고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교회의 담임 목사 격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러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다. 그는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소통하였다. 그 영적 상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권면의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다. 사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타락한 본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의 끝은 무엇인가. 류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최종적인 끝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말씀이라고 하셨다. 최종적으로 내 삶에 이 영적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세팅되어야만 비로소 바른 제자를 온전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 사도 바울의 부르심부터 빌립보교회 개척까지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로, 사도행전 7장 스테반 집사의 순교현장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행9).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고창 길리가야 다소에 머물며 구약성경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하며 자신을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시켰다. 그 후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교회에 정착하여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대로 제1차 선교여행의 파송을 받게 된다. 2차 선교여행 중 마가 요한의 하자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바울은, 성령에게 아시아복음화를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 드로아에서 마케도나의 환상("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케도나 사람 가운데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려늘(행16:9)")을 보고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렸다. 그렇게 당도한 최초의 유럽 관문이자 마케도나의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예비된 제자인 자책움감장수 '루디아'를 만났다. 또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주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옥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향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 16:31)"라 선포하며 그 가족 모두를 회심시켰다. 이렇게 루디아, 처유받은 여종, 간수라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교회의 시작이었다. 1캄프(기도와 성령인도), 2캄프(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3캄프(제자와 열매)로 이어지는 영적인 전도여정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항상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영적 상태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모든 만남과 산업의 역사까지 친히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 연약이라 살아가는 것이다.

2) 빌립보라는 도시와 교회의 특징 빌립보라는 이름은 헬라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이 도시는 로마제국의 직할 통치 하에 있었다. 마케도나 지역의 최전방 핵심지였던 빌립보에는 특이한 정령이 있었다. 로마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에 참전하고도 신분상의 제약으로 로마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방출신 퇴역장교와 군인들에게 이 변방 도시인 빌립보에 이주하여 살면 특별히 로마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빌립보에는 거친 퇴역군인들, 철학을 토론하는 지식인들, 가난한 노예들 등 극도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다 보니 의견충돌과 분쟁,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빌립보서의 문제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답

1) 투기와 분쟁 vs 착한 뜻(전도) 빌립보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 부류가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성숙함 없이 시기와 질투, 투기와 분쟁의 불순한 동기로 전도에 열을 올렸고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전도를 감당했다.(빌1:15) 누군가 전도를 많이 하거나 담임목사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시기하여 뒤에서 수군거리는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 홀로 바르고 거룩한 척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며 끊임없이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며 죽을 앞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 뜻밖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겐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교인들이 박 터지게 싸우고 시기하는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 못돼먹은 본성으로라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본질 자체가 위대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바울의 진짜 깊은 속내는 1장 27절에 담겨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라는 말씀이다. 세상의 육신적 기준과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외모가 늙고 살이 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의 영적 '진실'은 바로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여유가 없기에 남을 칭찬하고 세뇌 줄 영적인 힘조차 고갈된 것이다. 교회 내에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말씀으로 다독여 줄 중간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학공부는 몇 년이 걸리지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 당장 나의 굳은 결단 하나로 족하다. 수십 년을 믿고도 제자리걸음하는 율법적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당장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2) 엘리트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교만 빌립보교회 안에는 스스로의 배경을 자랑하는 로마시민권자와 지식인들, 철학자와 유대인 엘리트들이 가득했다. 바울은 자신의 엄청난 육신적 스펙을 나열하고 배설물이라 고백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3:4-9)"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무용담을 열 배씩 부풀려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하물며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제국의 장군출신들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 안에서 "내가 로마시민권자다, 내가 훌륭한 철학자다, 내가 돈이 많다"며 얼마나 많은 교만과 허영이 넘쳐났겠는가. 바울은 일침을 가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구유에 낳아서 오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까지 순종하셨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일방한 돈과 지식과 스펙을 자랑하며 교만을 떨어서야 되겠느냐는 뼈아픈 책망이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원초적 근원은 바로 '교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다. 교만하고 열등감이 똑같다. 자신의 못된 모습을 줄여보려고 교만하게 행동한다. 진정으로 여유 있고 복음의 깊이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며,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건만, 현실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아지타판이나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이란,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보내봐도 비로소 감사를 배울 것이다. 우리 부모세대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 이 나라를 일구었는데 작은 고난 앞에 정정대며 투정 부리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기저귀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육신은 어른인데 신앙의 수준은 유치원생처럼 "이거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며 주저앉아 떼쓰는 영적 미성숙에서 빨리 벗어나 철이 들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굳게 붙잡고 남을 살리는 전도자로 성숙하기를 축원한다. 아무리 좋은 응답의 조건이 주어져도 스스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사도 바울 역시 겉 모습으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성격이 강해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드럽게 쓴 것 같지만, 빌립보서 같은 서신을 보면 아주 뒤끝이 있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었다. 우리도 겉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고 어린이 같으며 부족할 때가 많다. 인내력과 능력도 없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욕도 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 나 역시 틈이 날 때마다 지구 30바퀴를 돈다는 심정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류광수 목사님의 토요메시지를 들을 때도 한국어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300%집중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함께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는다.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과 내 삶에 실천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고 도전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성공할 마음도 없으며 만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성공비법을 알려주어 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그레아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정확한 해답이 되고, 도전을 넘어 실천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영적인 관심이 다만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신앙성장과 훈련을 멈춘 성도들 바울은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한다. 성경을 14권이나 집필한 당대 최고의 영적 거장 사도 바울조차 끝없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 겸손히 꾀대를 향해 전력질주했는데, 오늘날 알량한 성경지식 조금 안다고 기도훈련과 말씀훈련을 멈추고 자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영적 문제, 정신병의 특징은 항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가정의 불화, 가난, 실패의 상처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거대한 미래의 꾀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라. 우리는 과거의 늪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1천만 제자를 세우고 다가오는 AI로봇시대와 237개국 선교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달려가게도 벅찬 세월이다. 비록 내가 당장 세계의 오지를 다 밟지는 못하더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매일 지구 30바퀴를 돌며 선교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에 승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결단하라.

4)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 빌립보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 내에서 부딪혔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데 힘을 쏟아야 했던만 정작 싸움과 갈등에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4:2)"고 권면하며, 4장 4절에서 7절에 위대한 신앙의 해답을 제시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 안의 갈등, 미움,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다. 사람에게 따지고 세상의 인지심리치로 같은 상담에 의존하지 말라. 세상의 심리치로는 "내가 못생겨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다"는 식의 흔적이고 인간적인 위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남편을 거칠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의 불씨를 지피는 그 배후에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사탄의 체계가 숨어 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로 상대방을 용서매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고 결박하는 영적인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위대한 연약의 말씀을 24시간 심령에 굳게 붙잡고, 25시의 영원한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깊이 누리는 참된 영적 자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결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명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지역, 민족, 세계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만, 불평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시대적인 비전과 또 서밋의 비전, 또 꾀대를 향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꾀대를 우리에게, 절대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과 짜증과 혐은 힘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속지 않고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자유되며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제자의 연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